

오전(1부, 노랑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8월 31일 (제 1321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걸 렘

미쳐야 미친다

“예수가 야순가에 미쳤구나.”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가며 밤낮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장손으로서 마땅한 의무였던 제사를 거부하던 내가 너무 못마땅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다. 맞다. 나는 예수께 미쳤다. 예수께 제대로 미쳤더니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설립되고, 세계 70개국을 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미치면(狂) 미치게(及) 되어 있다. 미치면 성과가 나타나고, 미치면 원하는 것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미친놈!”, 이것은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말이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죄수인 바울이 자신을 심문하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명해도 시원찮은 판에 되레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총독 베스도가 기가 막혀서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했던 것이다(행26:24).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5:13~14).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고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미친 바울을 통해 유럽은 복음화 되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릴 들으셨다.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느라 식사조차 할 겨를이 없자 이를 본 가족들이 걱정하며 ‘미쳤다고 했다’(막3:20~21). 예수님의 헌신과 삶의 태도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라. 자고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고전1:18)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 없다. 그 분야에 미친 듯이 노력하지 않고는 이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인, 달인이 그냥 되었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분야에 미친 자들이 있어 역사와 문명의 진보가 이뤄진 것 아닌가.
 예수께 미치지 않고는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예수께 미쳐야 응답이 있고, 기적이 따라온다. 예수께 온전히 미쳐보라.

꿈은 우릴 버린 적이 없다

2050년, 2070년, 2100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꿈을 키우고 있는 2025년에 우리는 또 향후 25년, 45년, 75년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미쳤다 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목사님과 함께했던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실상들을 목도한 우리로서는, 그 목표가 더욱 클수록 더 큰 기대와 소망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미래는 오늘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

우고, 부단히 기도하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의 이야기가 멀게 느껴진다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동안 보아왔고, 무수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노력하여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엘살바도르(El Salvador) 집회를 위해 먼 여정을 떠납니다. 처음 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나와 내 일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명령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사님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지구 반대편 엘살바도르를 향해 오직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앞세워 가십니다.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대한 꿈



문입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호랑이를 그리려 해야 최소한 고양이이라도 그리겠지만, 백지를 받아놓고 ‘내가 호랑이를 어떻게 그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 시간에 목이 터져라 외치며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그리며 도전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날 세계를 교구 삼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뚝 세우주셨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비록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범인(凡人)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꿈을 키

확했던 것들이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초도 지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엘살바도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번 집회를 통해 전대미문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난공사에 이익이 많은 법입니다. 내가 페루(Peru) 집회 때부터 강조한 난사(難事)가 형통(亨通)한 역사, 대(大)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엘살바도르를 향한 나의 꿈입니다.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고, 기도는 응답 받고 하는

이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에 노구(老耩)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00년까지 향후 75년을 그리며 달려가십니다. 70대 중반의 연세에 이러한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목사님을 따라 우리도 한번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좇아 달려가고 있습니까?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 늘 외치시는 목사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살전2:13). 목사님을 본받아 전대미문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0688@naver.com

엘살바도르 집회

2025년 9월 2일~12일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1:26~28)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자!

“목사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어릴 때 못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가볼까 합니다.”

“목사님, 비록 지금은 지하 단칸방에 살지만, 제 꿈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계 제일의 건축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멋진 의사가 될 겁니다.”

“목사님, 제 꿈은 목사님처럼 천국에서 왕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꿈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꿈을 꾸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나이와 상관없이 다들 활력이 넘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늙질 않으시네요. 혼자만 아는 비법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좋은 건 공유해야지요.”라고 말합니다. 비법이 있다마다요. 70 중반의 나이지만 제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을 보고는 ‘세계교구’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기고 나니까, 다른 말로 목표가 생기니까 삶이 변합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태아를 위해 예전에 즐기던 것, 해로운 것을 멀리하듯, 꿈이 잉태되니까 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멀리하고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오직 핏대를 향하여 진군했더니 15년이 흐르고 꿈이 현실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2050년, 2070년, 그리고 2100년까지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다. 평화통일이 되면 김일성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 천안문광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꿈입니다. 가깝게는 곧 엘살바도르 집회를 위해 떠나야 합니다. 제가 세월을 거슬러 살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기도하며 도전하라 못이룰 것이 없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죠. 꿈이란 자고로 ‘미쳤군’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크고 높게 꺾야 꿈인 겁니다.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꺾어야 꿈인 겁니다. 시편 81편에도 ‘네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안 꺾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현실이 이리 암담한데 무슨 꿈을 꾸겠냐고 합니다. 참나, 암

답하니까 더욱 꿈을 꺾어야지요. 여러분들 말대로라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팔린 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은커녕 일찍이 삶을 포기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럴수록 꿈을 향해 부딪치며 나아가 마침내 꿈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게 없었고, 입을 게 없었습니다. 암담하고 처참한 시대를 지냈지요. 그러나 ‘우라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있었기에 달렸고, 그 결과 오늘날의 부국이요 강국인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진배 없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겠습니까(잠29:18)?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이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꿈을 이룰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 말입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고, 엄청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백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들어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고 하시는데 뉘들 도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꿈을 꾸지 못하는 자는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사11:2)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섭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뜻이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전2:10)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 꿈을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꿈을 찾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꿈을 꾸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듯, 성령충만을 입으면 꿈이 생겨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아나 움직이게 되고, 삶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 하시니라”(창1:27~28).

이런 비전을 허락하신 것은 본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29:11).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 크다고 해도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일지라도 당신에게 꿈이 잉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일단 잉태해야 순산케 하실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일단 그 마음에 소원,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이 심어지면, 그 꿈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소망을 먼저 주셨기에 기도하며 40년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

누가 그렇다. “목사님, 제가 못 살 때는 제가 아무리 교회 다니자고 해도 듣는 척도 안하더니, 제가 잘 되고 나니까 제 말을 다 듣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들이 잘되고, 잘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신28:12~13)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맨날 꾸러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한다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야릇사람이 뒷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러니 머리가 되어야 하고, 남에게 꾸며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꿈을 꺾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성령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변화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렘3:20)라며, 성령의 능력으로 갖게 된 소망으로 풍부함에 이를 수 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못 배웠어도, 몸이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꿈을 가지세요. 기도하며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지렁이 같은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아홉이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렁이에 비유하셨다. 지렁이!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살려고 꿈틀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비가 오니 물 때문에 숨쉬기 어려워 살려고 땅 밖으로 올라와 숨을 쉰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꿈틀대다 죽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꿈틀거리기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렁이 같은 나라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이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맞아야 했고, 물건을 뺏아가면 뺏겨야 했고, 심지어는 아들딸을 뺏어가도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빼앗겨야 했다. 그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독립한 것이 우리의 힘이었는가? 독립군들이 끝없는 저항은 했지만, 일본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힘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살아서 꿈틀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해방하셨고, 인도하셨기에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찾아온 6.25 전쟁! 그저 밀고 들어오는 공산당에 밀려 후퇴하고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지렁이처럼 살려고 꿈틀대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들어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찾아온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으

니 민둥산에서 나무껍질이라도 뜯어서 먹고살려고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하늘만 쳐다본 이 민족. 이런 민족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 지렁이 같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틀대며 부르짖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 삶은 어떠했는가? 지렁이처럼 살아오지 않았던가. 가난하고 서럽고 힘들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삶의 여정이 지금의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3~14절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자리켜 맹세하여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다. 지금의 슬한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길 기도하시며 응원하신다. 우리 힘내자! 파이팅하자!

장영국 목사

:: To Be Succeeded ::

하나님의 특별훈련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기르지 않으신다. 당신의 자녀들을 강인하게 훈련하는 것은, 거센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들 듯,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를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능히 승리케 하셔서, 최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시절, 어린 자녀들이 언어와 경제,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탈북민들에게는 선교비로 따뜻하고 좋은 집,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지나고 장성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신 것을 증거하고,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간증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 것이고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이며, 밀려오는 거친 파도 위에서 파도를 탈 수 있는 멋진 서퍼가 된 것이다.

요셉,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꼭짓점에 섰고, 하나님의 대업에 쓰임 받는 영광을 누렸는지, 또한 우리 목사님이 지난 40년 세월을 어떻게 걸어오셨고, 이 시대 사도로 쓰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 봐야 한다.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묵묵히 충성했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각과 입술을 지켜내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전대미문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맛볼 것이다. 믿음의 선전들과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믿음으로 힘써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꿈꾸는 것 같은 영광의 그 날이 우리에게도 꽃다발을 들고 달려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8:18).

이국진 사모

졸탁동시(啐啄同時)

졸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어미 닭과 안팎에서 동시에 껍질을 쪼아야 알이 깨진다는 뜻으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도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3년 전 수련회를 앞둔 예배에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았다. 나는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수련생들에게도 졸탁동시의 은혜가 있길 바랐다. 은혜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은 안에서 열어야 하며, 예수님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신다. 혹시나 '올해도 똑같겠지' 하는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은혜에 집중하도록 말씀을 전하며 각오를 다졌다.

경기 교회는 수련회 후 수련생 셀프 평가를 시행한다. 수련회 전후로 은혜받기 위한 준비와 달성 결과를 스스로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함이다.

이번 평가지에는 '올해가 최고의 수련회였다', '회심의 기회였다', '내년에도 더 큰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의견들로 가득했고, 가장 중요한 '나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어가기 원한다'는 항목은 모두 만점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은혜를 이어간다는 것은, 수련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와 부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은혜의 성산에서처럼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두드려야 하는 것이다. 절박한 소원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졸탁동시의 각오로 기도하며 하늘 보좌를 두드리고, 문제의 문을 두드리면 닫혔던 문과 축복이 함께 열릴 줄 믿는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김해리 교육전도사



:: 소망의 언덕 ::

당신은 어느 길로 다니십니까?

"아, 내가 기도원에 온 목적에 따라 내가 다니는 길이 참 다르구나."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에 저는 여교역자 숙소를 본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열 번이 넘게 대성전과 숙소를 오갔습니다. 물론 기도원 안에는 다른 길들도 많았지만, 제 발걸음이 가장 많이 향하는 길은 언제나 그 숙소와 성전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집회 둘째 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름성경학교를 돕게 되면서 호텔 지하 세미나실과 목사관, 그리고 대성전을 주로 오가게 된 것입니다. 수련회 때만 해도 남자들은 호텔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성경 캠프 때문에 매일같이 호텔을 드나들게 된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같은 기도원에 머물러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나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 깨달음은 제 마음을 더 깊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목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 사는 사람의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삶의 길이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의 길은 종종 어둡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꾀를 따르는 길일 수도 있고, 세상 욕망을 쫓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삶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길은 또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앞두고, 우리의 두 발이 걷는 길과 마음이 걸어가는 길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대미문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 내가 매일 기쁘게 ::

:: 빛이 되리라 ::

승리하셨습니다!

얼마 전 읽은 책의 한 내용이 마음을 울렸다. '경기장 안에서 웅망하게 싸우는 선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장 밖에서 그저 평가하고 분석만 하는 해설가가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였다.

해설가는 그럴싸한 말로 결과를 평가할 뿐, 실패의 고통도, 승리의 기쁨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그저 이론적인 꾀데기만 있을 뿐,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며, 곤경에 빠지기도 한다. 때론 감독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해 좌절도 하지

만, 결국 다시 일어나 부딪히고, 극복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해설가의 자리에 머문다. 교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며, 이런저런 분석을 한다. 날카롭게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부딪히고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다.

더 이상 경기장 밖의 해설가로 머물러선 안 된다. 치열한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

하시는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일터,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선수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경기장으로 담대하게 입장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뛰는 동료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시20:5). **전호정**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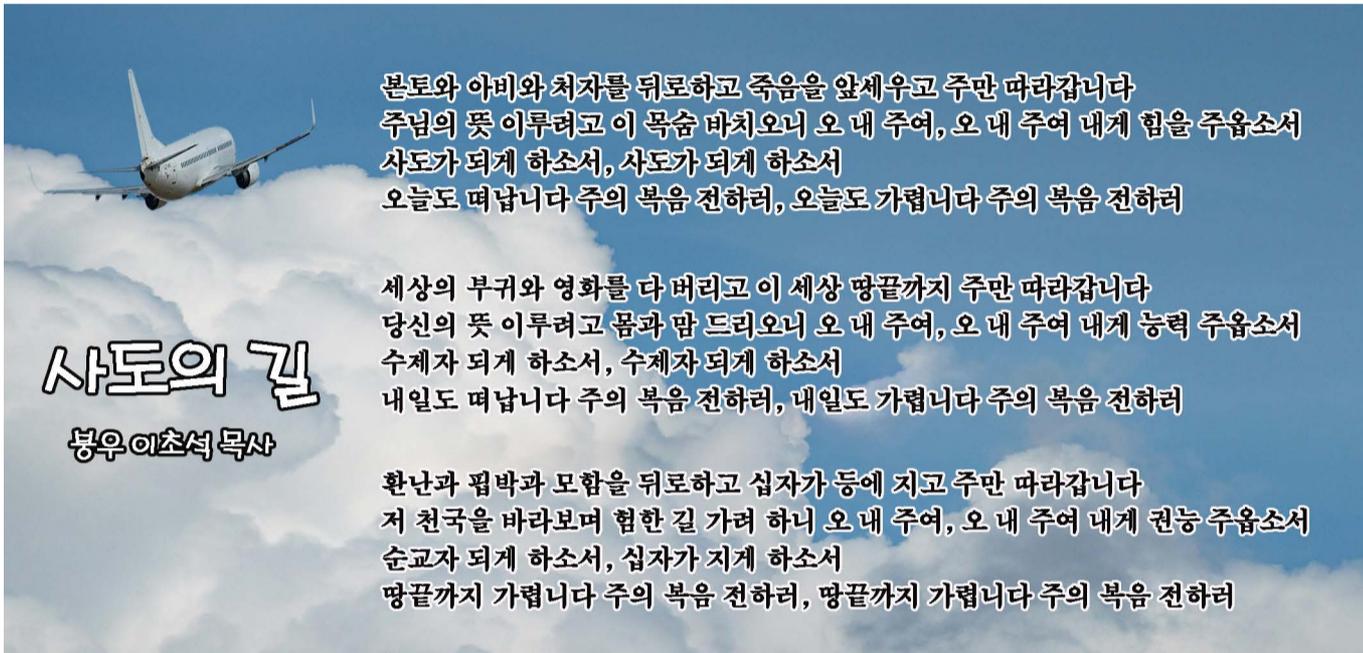
한 달 전쯤, 꿈을 꾸었습니다. 청장년부 담임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꿈이었습니다. 걷다가 막 헤어지려 할 때쯤 목사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이번 대학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였어요. 참석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에, "네, 목사님."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와서 봉사도 좀 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잘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꿈에서 깹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 거지?' 그런데 1주일 정도 후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인수를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지난주에 꿔던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Yes!' 했죠. 외국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부족하지만 외국인 인수를 도와 맡겨주신 일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손짓, 발짓하며 의사소통도 해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며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돌아온 월요일, 제 사업의 한 협력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되는 곳이어서 그곳과의 계약연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데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계약을 연장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꿈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을 믿고 어렵지만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원도 응답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본토와 아비와 처자를 뒤로하고 죽음을 앞세우고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 이루려고 이 목숨 바치오니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사도가 되게 하소서,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떠납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오늘도 가립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이 세상 땅끝까지 주만 따라갑니다
당신의 뜻 이루려고 몸과 맘 드리오니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수제자 되게 하소서, 수제자 되게 하소서
내일도 떠납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내일도 가립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사도의 길
봉우이초석 목사

환난과 핍박과 모함을 뒤로하고 십자가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험한 길 가려 하니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게 권능 주옵소서
순교자 되게 하소서, 십자가 지게 하소서
땅끝까지 가립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가립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Good News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 하리라'

그는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바탕 놀다가 돌아가는 소풍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출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 다녀온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장이란 보낸 사람이 있는데, 보낸 사람이 돌아오라고 하면 언제든 돌아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하늘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가볍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의 복을 받았지만 저택을 만들거나 성을 건설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해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생각을 새롭게

사람은 하루 평균 6,200번의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1분당 6.5회입니다. 생각은 분명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은 나를 이끌고 내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연초 다짐한 것이 있는데 마음처럼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붙잡고 답을 찾기 위해 헤맸습니다. 그동안 부정의 생각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안 된 거구나."

수족관에 갇혀 야성을 잃어버린 상어가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심은 탓에 걸려 도전할 생각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설교를 듣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왜 안 되지?'에서 '어제까진 안 돼도 오늘은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자녀의 정체성

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사람,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다, 강을 건넌다면 뱃목을 버려라, 잃어버린 꿈을 찾아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전소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533. 9191